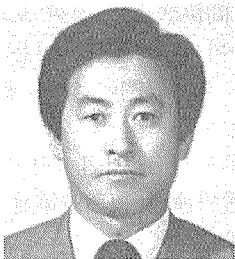


廚房機器의 生産 및 技術 動向



이 인 재

후지카大元電機(株) 常務理事

국내 주방기기 산업은 시설투자, 기술투자 등이 타산업 및 선진국 동일 산업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근원적인, 과감한 투자환경 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국내외에서 급변하고 있는 각 산업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나아가서 후진산업으로 격하될 것이다.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 및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20세기의 尖端 科學은 Computer의 개발에서 시작되어 人間이 機械의 노예가 된다는 공상을 할 정도로 비약적인 發展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사는 人間이란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듯이 태고時代부터 現在를 거쳐 미래까지 먹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먹는다는 것' 자체를 놓고 생각할 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일런지는 모르지만 우주를 양복하는 尖端 科學의 現實에서도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人間이 먹지않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먹지않고 살 수 있다는 연구를 했다는 논문이나 연구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먹지않고 살 수 없다'라는 自然法則에 인간은 순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뜻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먹는 데에도 여러가지의 方法들이 있을 것이다. 원시時代의 사람들은 거의 날것으로 食糧 消化를 解決했을 것이고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익혀 먹게 되었을 것이다. 익혀 먹는 데에도 어떻게 하면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生活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家電製品들이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엌의 혁명을 일으킨 전기밥솥을 보더라도 얼마만큼의 發展이 있었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 現代의 어머님들만 보더라도 그러했다. 첫닭이 울면 일어나셔서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밥을 지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취사기능만으로도 부족하여 보온機能까지 겸비한 전자자가 부착된 兼用 솥이 개발되었고 새벽 단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어느 時間이든지 원하는 時間에 다이얼만 맞추면 언제 어느 때이고 밥을 지을 수 있는 밥솥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취반과정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마이크로 컴퓨터 方式을 導入하여 옛날 가마솥의 밥맛을 재현시킨 컴퓨터



현재 주방기기도 단순기능에서 Program 화가 추진되고 있다

터 시대의 가전제품이 보급되었으며 단순히 밥을 짓는 데만 이용하던 기구가 복잡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 불만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국산 가전제품은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으로 최고의 品質, 저렴한 價格 等 品質우위의 확보를 위한 製品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企業으로서의 사명과 社會的인 責任을 갖게 되었다.

83년 이전만해도 제조工程에 對한 사후 檢査 中心의 피동적인 자세이였으나 오늘날은 사전 예방과 品質保證제도의 정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업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제품생산時 노후된 시설에서 자동화된 시설투자가 대체로 되어져야만 한다. 기술投資부문에서 現在 우리나라의 기술투자 비용은 판매대비 0.49%로써 기술 투자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3-7배나 적게 투자되고 있는 바 제품의 근본적인 品質改善의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과 더불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성 제고 및 채산성있는 과감한 R&D 기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전업체는 現在 국내시장의 판매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하여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기술축적에 있어 기술의 Know How 時代에서 Know Why시대로 급격히 변천되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品質의 신뢰성 보증확보를 위하여 工程中的 生産성 저해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채산성있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첨단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부단한 기술축적과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소비자는 외국상품 선호도를 지양하고 한국기업을 신뢰하고 使用할 수 있는 양질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된다는 기업의 社會적인 責任을 공감하여야 한다.

